

전남 농어촌 부활 이끌 관련 법안 국회 통과

획기적·제도적 기틀 마련 중대 전환점
서삼석, 농어촌·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문금주, 소득혁신 '햇빛연금' 시대 열어



서삼석 문금주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과 동시에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안과 '해운법' 및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등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인구감

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빈집 증가와 생활 인프라 부족, 섬 지역 교통 불편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섬 주민의 주요 이동수단인 여객선 항로도 이용객 감소와 운영 적자 등으로 축소·폐쇄가 이어져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촌빈집정비 특별법안'은 무엇보다 지자체장이 '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빈집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빈집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해운법' 개정안은 도서지역 해상교통수

단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해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서 의원이 제20대 국회 당시부터 지속 요구해 온 '여객선 공영제'가 제도적으로 반영된 결과란 평가다.

아울러 '섬발전촉진법' 개정안에는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에서 운영 중인 행정선의 이용 대상을 기존 섬 주민에서 국민 전체로 확대해 섬 지역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과 섬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 과제"라며 "빈집 정비와 공영항로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과 섬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

진)도 이날 "자신이 대표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영농형 태양광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등 총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최대 성과는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의 분기점이 될 '영농형 태양광법'의 제정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 위기로 인한 작황 불안정이라는 삼중고를 겪는 농촌 현장에 농지 보전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는 혁신 모델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햇빛연금'을 통해 농업인이 안정적인 부가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구축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한 결정적인 법적 토대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함께 통과된 '농지법'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체계화했다. 상속 농지 등에 대한 위탁 임대 의무화를 통해 농지 이용률을 제고하고, 영농형 태양광 및 농산어촌 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타 용도 일시사용 범위를 확대해 농지의 가치를 다각화하는 길을 열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농수산업 생산자단체의 가맹점 등록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농어촌의 식품 사막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재구축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발판을 마련했다.

문금주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소득 구조의 혁신부터 농지의 효율적 관리, 지역 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까지 농어민이 정책적 변화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5·18 전국회고대회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9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2026년 제24회 5·18 전국회고대회'에 참석해 주요 내빈들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남도의병박물관, 2개월만에 관람객 3만3천명 돌파

韓대표 역사교육 거점 자리매김

광역시지단체 최초의 의병 전문박물관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관람객 수가 개관 2개월여만에 3만3천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대표 역사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3월5일 개관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누적 관람객 수가 지난 7일 3만3천명을 넘어서었다.

3만3천명은 임진왜란부터 대한제국까지 국난 극복에 앞장선 남도의병의 수서서 의미를 더한다. 박물관 외벽에는 이를 상징하는 3만3천개의 알루미늄 패넬 키네틱 파사드가 설치됐다.

의병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평일 평균 200-300명, 주말 800-1천2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은 물론, 군부대, 대학 등 기관·단체 방문도 이어지고 있으며 어린이박물관과 체험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초·

중학교 등 단체 관람 예약도 이어져 청소년 역사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의병박물관은 이날 3만3천번째 관람객인 고흥 거주 송기열씨를 위한 환영 행사를 열었다. 송씨에게는 앞으로 의병박물관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지속해서 받아보는 특전이 주어진다.

박중환 남도의병역사박물관장은 "관람객 3만3천명 돌파는 나라와 이웃을 위해 헌신했던 남도의병의 뜻을 되새기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더 많은 도민과 관람객이 의병 역사를 가까이 접하도록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기자

세계 인권 전문가 1천여명 광주서 '국제적 연대' 모색

13일 DJ센터서 '세계인권도시포럼' 개막
여성·장애인·청소년 등 6개분야 주제회의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첫 참석

유엔 인권 분야 최고 책임자인 볼커 튀르크(Volker Turk)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권 전문가 1천여명이 광주를 찾는다.

광주시는 오는 13-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2026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광주시와 유네스코(UNESCO),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공동 주최하며 전 세계 인권 관계자 1천여명이 집결해 국제적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올해는 유엔 인권 분야 최고 책임자인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처음으로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직접 참석한다.

튀르크 대표는 14일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또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 광주의 민주·인권 정신에 경의를 표할 예정이다.

전 라울발렌베리 인권법연구소장인 모르텐 사에름(Morten Kjaerum)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조앤 카머프 워드(JoAnn Kamuf Ward)

뉴욕시 인권위원회 정책 및 대외협력 부위원장, 피티칸 시티넷(Pitikan Sithidej) 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모르텐 코흐 안데르센(Morten Koch Andersen)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교육 및 연구국장 등 세계 인권 리더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포럼은 전체회의에서 권위주의 확산에 대응하는 인권도시의 역할과 실천 방향을 논의한다. 여성, 장애인, 어린이·청소년 등 6개 분야별 주제회의를 통해 주요 인권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룬다.

특별회의에서는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와 협력해 'AI시대 인권과 웰에이징' 등 미래 인권의제를 논의한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 민·관 협력(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회의와 5·18 사회적 인권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행사 당일 현장 등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참석으로 광주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강화됐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광주가 세계 인권도시 협력의 중심 플랫폼으로 도약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묘 이장 · 개장

가족묘 조성 / 개장 / 묘지이장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장 전문 ☎ 문의) 062-464-3466